

마음, 과연 무엇인가 -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

빠야닷시 스님 (스리랑카)

(5) 다음 생으로 진화하는 識

사후 재생 가져오는 것은 입에 의해 조건 지어진 識

재생식은 재생시에 존재하는 이숙식(異熟識)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생순간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새 존재는 바로 앞의 존재와 연관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해 그 개체의 과거 전체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숙식은 그 전에 있던, 재생을 일으키는 정신적 요인인 상카라, 즉 의지적 형성력 또는 업에 기인한 것입니다.

아비담마에 나오는 재생식이라는 용어에 상응하는 말을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은 관심을 끄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부(中部)>의 106경에서는 이 이숙식을 '진행식'으로,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숙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으로 진화하는 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도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식에 의지하여 명색, 정신·물리적 존재가 일어납니다. 식은 또 한편으로는 명색에 의해 조건 지어집니다. 이렇듯 식과 명색은 상호 의존적이며, 그들이 함께 새로운 존재를 이룹니다.

연결식은 영구불변하지 않는다

<장부(長部)>의 <대연경(大緣經)>(15경)에 보면 부처님이 당시 시자인 장로 아난에게 법문하시는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식이 모태에 들지 않거나 모태에 들었다가 떠나버려도 명색이 발육, 성장할 수 있겠느냐?”

아난다 장로는 부정적 대답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태아의 발육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현대 생물학에 의하면 '새로운 인간의 생은 아버지의 정자가 모태에서 난자와 합쳐지는 기적 같은 순간에 시작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탄생의 순간입니다. 과학은 이처럼 물리적 요인들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순전히 정신적인 제 삼의 요인도 말하고 있습니다.

큰 경)이 지적하듯이, 존재의 잉태는 세 가지 요인들의 동시발생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합하고, 어머니가 수태기에 있고, 그리고 간담바(gandhabha)가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제 삼의 요인 간담바는 식, 또는 연결식, 내지 진행식을 가리킵니다. 주석가 붓다가 사에 따르면 간담바는 '자궁에 들어가려 하고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야흐로 그 상황에서 태어나려 하고 있는 존재 즉 유정은 업이라는 역학적 구조에 의해서 내몰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간담바는 '아기의 수태를 주재하는 유사신(類似神)도 아니며 베다 산스크리트의 간다르와가 암시하듯 '육체를 갖지 않은 정령'도 아니라 점입니다. 초기 경전을 보면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어떤 정령도, 영혼도, 아(我)와 같은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후에 한 개체의 재생을 가져오는 것은, 상카라 또는 업의 형성력에 의해 조건 지어진 식(識)인 것입니다.

존재 또는 개체의 재생을 결정하는 정신적 요인인 식은 자아나 영혼이나 아(我)와 같은 실체의 형태로 항존(恒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 역시 조건 지어지고, 변화에 복종합니다. 부처님 재세시에도 항구 불변하는 자아나 영혼이라는 형태의 식이, 인간 속에 내재하여 일생을 지속하고 죽음이 오면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전생하여 삶을 함께 묶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재세시의 일부 형이상학자들은 '심(心)이나 의(意)나 식(識)이라 불릴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항구하고 일정하고 영구하고 불변하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중부>38경에서 우리는 그 생생한 예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사야띠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님의 직계 제자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법을 내가 이해하기로는, 계속 윤회하며 지속하는 것, 생

을 전전하며 거듭 태어나고 있는 것은 똑같은 식(識)이다.”

사야띠가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자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사야띠여, 네가 말하는 그 식이란 무엇이나?”

“그것은 표현을 하고, 느끼고, 선택하거나 불선택한 행위의 결과를 때론 여기서, 때론 저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조건을 떠나서는 어떤 식도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식은 조건에 의지하여 생긴다는 것을 설명해 그 의 뜻된 믿음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야띠는 동일한 식이 표현자로서 또 경험자로서 지속된다고 말하여 식을 모든 정신적 활동의 배후에 있는 행위의 주체로 보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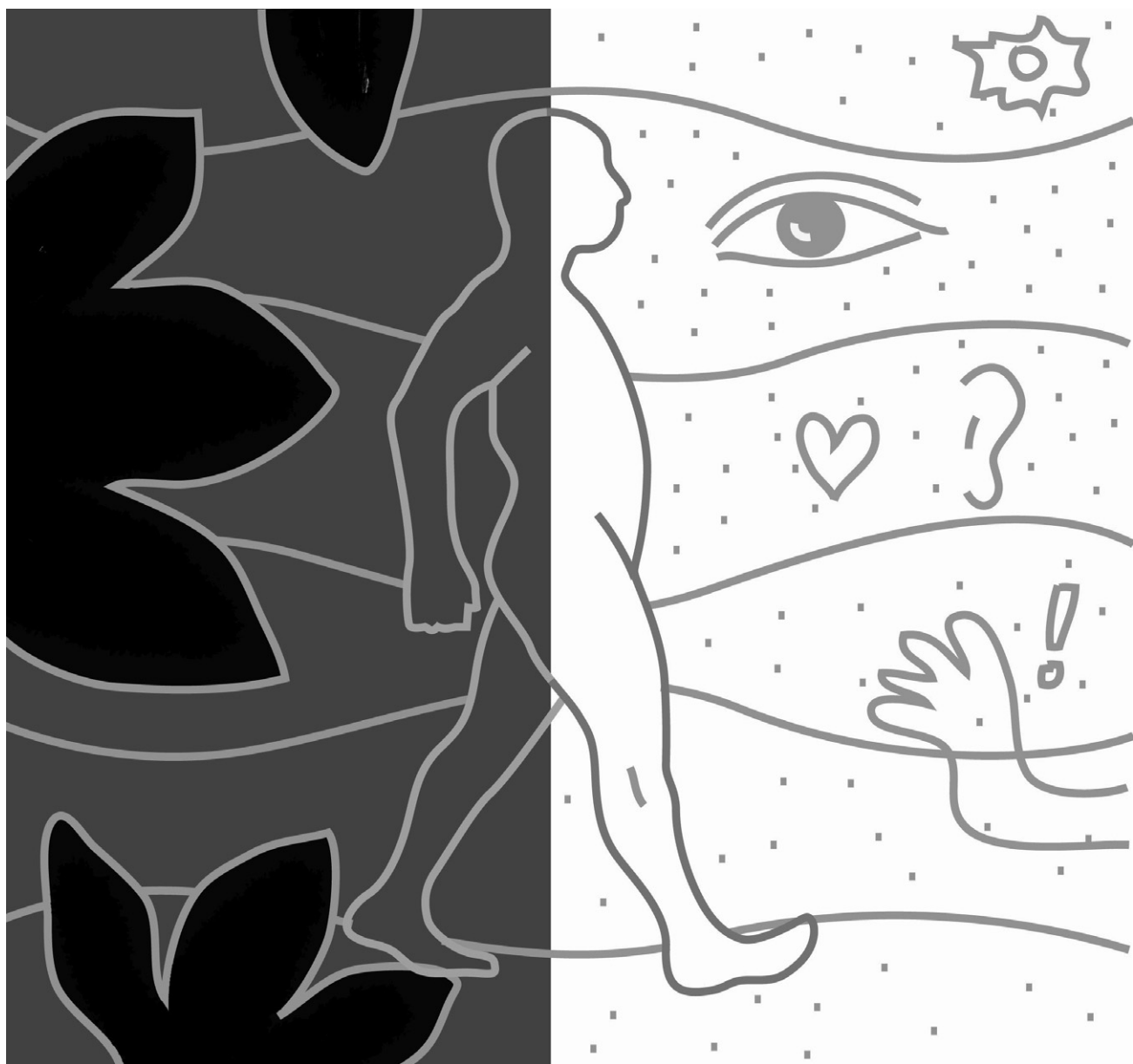
자, 이렇게 해서 식은, 의식의 흐름으로 표현된 바와 같이, 결코 존재의 순환을 줄곧 같은 상태로 부서지지 않고 지속하는, 변함없이 상주하는 어떤 단일체가 아니라

존재의 재생 결정하는 식은
정령도 영혼도 자아도 아니다

식은 조건에 의지하여 생기고
식과 명색은 상호 의존적

잉태는 세가지 요인 동시 발생

아버지 · 어머니 결합
어머니 수태기에 있고
간담바(연결식) 있을 때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다



점이 충분히 언급되었을 것입니다. 식 역시 조건 지어지며 또 그렇기 때문에 항구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흐름, 의식의 흐름, 삶의 흐름

그것은, 사야띠가 생각했듯이,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전전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의식을 언급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 것은 꼭 부처님의 말씀을 되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끊어진 마디마디가 연결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흐른다. 그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묘사하려면 '강'이나 '개울'이란 비유가 적절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의 흐름, 의식의 흐름, 또는 주관적 삶의 흐름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여기서 잠깐 불교 심리학이 말하는 바왕가(bhavaṅga)에 관해 몇 마디 언급하고 넘어가야 공평할 것 같습니다. 바왕가 찌따(bhavaṅga citta) 또는 바왕가 소따(bhavaṅga sota)는 사람의 정신생

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마음의 세 가지 수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의식·잠재의식·무의식의 셋입니다. 의식의 수준이란 알아차림의 수준을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의식 수준은 마음의 다섯 감각 기관으로 알려진 다섯 통로를 통해 줄곧 작용합니다.

마음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언제든 간에 생각해 낼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을 담고 있는 영역입니다. 의식중의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정신 생활의 잠재의식 수준은 마음대로 의식 속에 떠올릴 수 있는 기억들의 저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수준은 마음대로 기억해 낼 수 없는 과거의 모든 경험 내용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때때로 외부의 자극이 없는 가운데 그 스스로 의식수준에 떠오르기도 하며 최면술과 같은 특별한 방법에 의하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정신적 원인들의 창고로서 무의식의 마음에 특히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이란 책에서

무의식적 활동의 예를 무수히 들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스리랑카) 학자들이 바왕가 찌따를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과 동일하게 보고 있지만 저는 완전히 일치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그런 수준들의 식(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비담마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마음, 위티 찌따(路心)와 바왕가 찌따(有分心)를 말합니다.

위티찌따는 의식수준에서만 일어나는 사유 과정으로 깨어 있을 동안 다섯 감각 기관을 통해 작용합니다.

바왕가 찌따는 깨어 있을 때나 꿈이 없는 깊은 숙면 상태에서나 똑같이 작용하며 따라서 의식수준의 밑면에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구의 개념과 전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것은, 일종의 잠재 의식 또는 무의식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잠재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마음이란 개념의 전 범위를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륜시리즈 7”(고요한 소리)의 내용입니다.

<p>불자 정보 882호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p>	<p>포교원(급)안내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래리 148번지 • 4층 건물 중 2층 • 평수 : 32평 시설완벽 • 법당 : 장엄되어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방 2칸, 시설비 2,000만원) • 몫만 들어오시면 됨 010-2565-7200</p>	<p>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 • 대지 : 135평 • 법당 14평, 개금 삼존불 • 후불, 칠성, 지장, 신중, 영가단 • 심야전기 • 주차장 완비, 도로에서 200m • 가액 : 9천5백만원(조정가) 010-4146-6556</p>	<p>실버타운, 요양시설, 적지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남면 • 좌정릉,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 • 모두 갖춤(명당), 식수1급수 • 현 원주주택, (옛날 학교터) • 554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517-8526</p>	<p>포 교 원 안내 • 위치 : 서울 마포구 • 석가 삼존불, 지장, 칠성, 신중, 산왕, 소불 120, 인등 • 방2, 주방, 거실, 다락방 • 실평수 35평, • 법당 20평 •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 9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몫만 오시면 됨 010-7178-5892</p>	<p>사찰(급) 안내 • 경북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 명당 • 대지 500평 • 법당 : 25.5평, 요사채 40평 • 철골 토기와 박포 • 석가모니불, 좌우 3존불 • 칠성 104위, 산신행화, 최고의 명당 • 가액 : 5억 8천만원 010-4078-1778 011-529-7799</p>	<p>사찰(급) 안내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갖바위근처 • 대지 224평 • 법당 30평, 요사채 10평, 산신각, 육외화장실2개, 하우스 1동 • 주차장, 텃밭, 천연염색 가능 • 대출 1억 가능 • 가액 : 3억 2천만원 011-9588-5923</p>
<p>토 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한적한곳 • 임야 : 13,000평 • 전, 담 대지 1,600평 • 법당(조립식) 25평 • 요사채 10평 • 가액 : 1억 7천만원 010-8030-2467</p>	<p>토 굴 안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 대지 150평, 전 170평 • 건물 18평 (조립식) • 마을끝 산자락에 위치 • 바다보임, 산세수려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요망 • 가액 : 9천만원 054)787-2697</p>	<p>포 교 원 안내 • 위치 : 경남 포항시 해동동 • 3층건물중 2층, 25평 • 보증금 5백만원, 월 3십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즉시 법회 가능 • 몫만 오시면 됩니다 010-5387-7973</p>	<p>사 찰 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 1층 요사채 50평 • 2층 법당 50평 • 옥상 : 지장보살 입상, 대종 • 대지 75평, 시설 A급 • 가액 : 4억 7천만원(시설비 포함) 010-3621-8747</p>	<p>암자터, 토굴안내 • 위치 : 산종교 물맑은 공주 정안면 • 상류계곡, 세종시 5분거리 • 웅담샘 있고, 365일 물이 흐르고 있음 • 평수 8300평 • 건물 40평, 25평(2동) • 가액 : 10억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4130-0606</p>	<p>사 찰 안내 • 울산(통도사, 석남사 중간지점) • 공기 좋고 교통 좋음 • 평수 : 240평 • 건물 : 창고 화장실(별도),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 시설 : 완벽, 심야보일러 • 가액 : 2억 9천 5백만원 010-8364-0816 052)264-0810</p>	<p>토 굴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 청암면 면사무소 위 • 김봉관마을 밑, 큰 길 도로옆 • 깨끗한 가옥 • 방2, 부엌, 평수 90평 • 가액 : 2천 7백만원 010-7166-8873</p>
<p>사찰 명당부지 안내 • 위치 : 경남 함천군 삼가면 • 한옥 황토집3채 • 대지 약1천평 • 주변 경관 산세 수려하고 전국 교통망 편리 (진주, 창원, 대구, 20~40분거리) • 가액 : 22억 055)934-4488 010-3521-6920</p>	<p>농가주택안내 • 위치 : 경북 영양읍 입암 • 한적한곳 • 남향에 위치한 대지포함 • 건물 2동에 좋은 조건 • 다용도 • 가액 : 4천 900만원 • 주인직 010-8899-8899</p>	<p>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맞은편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행화 • 주방가구 일체 • 30평, 방2, 주방, 샤워실 • 가액 : 보증금 6백만원, 월 59만원 • 시설비 950만원 010-2208-7749</p>	<p>포 교 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 3층건물의 3층, 평수 35평 • 옥탑방 포함, 옥상 사용가 • 시장입구 • 버스정류장 앞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약간 010-5607-0108</p>	<p>포 교 원 안내 • 위치 : 청주시내 • 평수 : 5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협의 후 결정 • 시설 최신식, 깨끗 010-5438-0138</p>	<p>사 찰 안내 • 위치 : 청도 (대구에서 30분거리) • 평수 130평 • 건평 42평(인법당) • 가액 : 1억 6천만원(절충가능) • 남향 교통편리 010-2501-3671</p>	<p>포 교 원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도계동 도계주유소 인근 4층 건물중 2층 (53평) • 법당 : 삼존불 후불랑화 인등 230불 • 법당1,방4,바텐식주방,창고1, 화장실2실내,외각 1개 • 도시가스, 각방 전기페널 설치,현대식 시설 • 전세5천 월30,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산사 이전관계로 양도 010-3869-7100</p>